

베트남서 전북자치도 관광기업 우수성 알려

전북문화관광재단, 베트남 현지서 사업설명회 개최... 베트남 진출 위한 업무협약도 9건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1일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주)블루프로그, (주)성수주조장, 주식회사 아사, 주식회사 피치, 초이리 브루어리 등 전북자치도의 관광기업 5개사와 베트남 현지 관광, 그리고 유통 MICE 업계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 기업의 주요 사업 아이템을 안내했다.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됐다.

설명회 기간 총 9건의 전략적 제휴 관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도내 관광기업 5개사는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스타트업 지속성장 지원사업 SCALE-UP 프로젝트 선정 기업이다.

이날 설명회에 방문한 호치민시 산하 호치민 관광진흥센터 관계자는 "양국의 관광기업들이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갖기에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자리가 호치민과 전북자치도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피치 강선구 대표는 "이번 설명회를 통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1일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해 베트남 관광과 유통 등 비즈니스 관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를 발판으로 향후 국가 또는 지역별 사업설명회로 확대되길 기대하며, 오늘 설명회가 베트남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재단 최영규 사무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북자치도 관광기업의 우수한 아이템을 알리고,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광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베트남 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227% 증가한 42만10,688명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순위에서 5위(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에 랭크, 전북자치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표적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5인 이상 단체 베트남 관광객에게 15일 비자 면제가 허용되면서 전북자치도는 더욱 더 유리한 관광 환경이 조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7405, 421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국팔도 한지여행 4회차 참가자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8일까지 '전국팔도 한지여행(4회차)'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지여행은 올해 4월 첫 탐방을 시작으로 △1회차, 원주(무지엄산·페이퍼갤러리) △2회차, 서울(더페이퍼랩·국립중앙박물관) △3회차, 합천(해인사·대장경대마파크) 등 전국을 돌며 종이의 기원부터 한지의 쓰임까지 한지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4회차에는 1377년 직재심체요절이 간행된 청주시를 방문해 고인쇄 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문화제조창 등을 둘러보며 전통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감상할 예정이다. 한지여행은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전년한지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통한지팀(063-281-1637)에 문의하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시대의 발전 속에 일상생활에서 항상 볼 수 있었던 종이로 만든 노트나 수첩 등이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며 "한지여행을 통해 세계적으로 재질의 안정성과 보존성을 인정받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한지'의 가치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군, 국가지정 유산 승격 용역 추진

고창 하고리 왕버들나무숲·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

고창군이 '고창 하고리 왕버들나무숲'과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를 국가지정 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용역에 나선다.

'고창 하고리 왕버들나무숲'은 성송면 하고리 산태마을 앞 하천 둑을 따라 있는 숲으로 수령 200년 이상의 왕버들나무를 포함한 다양한 수종이 생육하고 있다. 마을앞을 흐르는 대산천에 대한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수해방지림과 비보림으로서의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마을숲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9세기 전라도무장현도에 표기가 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와 인문사회적 의미가 있다.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는 2018년 무장읍성 궁고 발굴조사를 하면서 총 11점이 발견됐다. 비격진천뢰는 조선 최초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며 살상력이 높아 인진왜란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무장읍성에서 출토된 비격진천뢰는 뚜껑까지 있는 완형 1점이 발굴되어 비격진천뢰의 구성원리를 알 수 있게 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

하고리 왕버들나무숲은 지난 2002년 도 지정 문화유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무장읍



고창 비격진천뢰의 출토 모습

성 출토 비격진천뢰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고창군은 '하고리 왕버들나무숲'과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의 학술자료를 종합해 천연기념물과 보물로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 자료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 하고리 왕버들 나무숲과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를 국가지정 유산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고창 지역 문화유산의 격을 높이고 안전하게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 군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오고 싶은 지역의 친근한 문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태권도 교관단 베트남 파병 60주년 기획전

국립태권도박물관, '파이한, 태권도' 사진·영상·자료 등 200여점 선보여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베트남 전쟁 당시 1964년 파병을 시작으로 1973년까지 주둔했던 한국군 '태권도 교관단'을 재조명하는 '태권도 교관단 베트남 파병 60주년 기획전 「파이한, 태권도」'를 10월 27일까지 국립태권도박물관(관장 김태균)에서 개최한다.

「파이한, 태권도」는 태권도 교관단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와 사진, 영상을 전시한다. 특히 '월남의 태권도(1967)', '주월한국태권도 교관단 자료집(1969)', '크메르 태권도 교육 자료집(1972)', '주월 태권도 수련 계획 및 용어집', '월남 대통령의 태권도 교관 훈장 수여 문서(1973)', '태권도 교관 류시환 도복과 띠' 등 중요한 사료가 첫 선을 보인다.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의 태권도 수련장을 재현한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1957년 월남 대통령 방한 시, 한국군 태권도 시범을 관람한 후 1959년 국군 태권도 시범단을 베트남으로 초청하게 된다. 이후 1962년에는 한국 태권도 교관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1년여간 베트남 군부대에서 태권도를 지도했고, 1964년 베트남 파병안이 통과되면서 비전투부대로 구성된 이동 의과병원과 10명의 태권도 교관단이 처음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태권도 교관단은 1973년 베트남에서 철군할 때까지 장교 400명, 부사관과 병사 328명 등 총 728명이 23만여 명의 베트남인에게 태권도 수련을 지도하고 3천여 명이 가까운 유단자를 배출했다. 특히 태권도 시범을 통해 136만여 명의 베트남인과 각국 파병 군인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선보이는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북미 등 한국 태권도를 세계 각지에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기획 전시 「파이한, 태권도」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대한민국 베트남 파병'에서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배경과 전개 과정을 다룬다. 2부 '베트남에 울려 퍼진 태권도 함성'에서는 베트남에 파병된 태권도 교관단의 활동을 소개하고, 3부 '태권도로 맺어진 스승과 제자'에서는 1973년 한국군 철수 이후 노년이 된 태권도 교관과 이제는 60대가 된 베트남인 제자의 재회를 조명한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현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1960년~70년대 태권도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군 태권도 교관단을 재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태권도 교관단으로 활동했던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이제는 노년이 되었다. 이분들이 태권도 세계화의 출발점이자, 태권도 현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획전시 개최에 공을 들인 바, 많은 분들이 국립태권도박물관을 찾아 관람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목재가공지원센터-남원 옷칠공예관 '맞손'

전북대학교 목재가공지원센터(센터장 오승원)는 22일 남원시 옷칠공예관(관장 박강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승원 센터장과 박강용 관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발전을 위한 환담 등이 이어졌다.

앞서 전북대 목재가공지원센터는 장수와 무주, 그리고 임실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군 지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인·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국가 공모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목재 옷칠이라는 특화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도 공동으로 추진기로 했다.



오승원 센터장은 "전북대가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목재가공지원센터도 이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을 확장해 가고 있다"며 "지역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목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옷칠'이라는 남원이 가진 특화산업 분야의 발전과 관련 분야 우수인재 양성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